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에 나타난 한국문화의 특성*

정 태 연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자아(self)에 대한 개념, 행동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개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서구문화권이 동양문화권에 비해 일관적인 행동을 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 다음, 연구 1에서는 가상적인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미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이 평정한 행동일관성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자료에서는 특질수준이 극단적일수록 그 특질수준에 해당하는 행동이 더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자료에서는 특질수준의 극단성보다는 그 수준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행동일관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연구 2에서 가상적 지각대상자와 실제 평가대상자를 이용하여 얻은 한국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동일관성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할 경우 행동일관성과 특질수준과의 관계는 매우 미약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한국문화의 특성과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격특질, 특질수준, 행동일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한국문화

한 개인이 특정 성격특질차원에서 일관적일 때 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관성 문제는 일찍 그의 행동은 여러 상황이나 시간대에 걸쳐 변하지 부터 사회 및 성격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0-005-C00012).

연구자에게 연락은 tjung@yonsei.ac.kr로 하기 바람.

중의 하나였다. 가령, 행동을 주체하는 개인의 성격과 그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중에서 어느 쪽이 이 개인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Kenrick & Funder, 1988; Mischel, 1968; Ross & Nisbett, 1991). 여러 상황에 걸쳐 행동이 발생할 때 그 상황들은 서로 달라 가변적인 반면 행위자의 성격은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일관성은 성격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서구의 사회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몇몇 이론들 가령, 인지부조화이론(Festinger, 1957)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균형이론(Heider, 1958)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Swan, 1983) 등은 모두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지적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가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관성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주제들도 문화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가령, 개인의 태도나 가치에 근거한 행동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문화권에서는 행동일관성이 인물평가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개인의 내적 특성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권에서는 행동일관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한국 문화가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과 관련해서 서구문화와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행동일관성과 관련된 변인들로 자아(self)에 대한 인식, 행동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귀인 및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엄격성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 연구 1에서는 가상적인 평가 대상자를 이용하여 미국표본과 한국표본간에 행동일관성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2에서는 한국표본에 근거하여 가상적 지각대상자 및 실제 평가대상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행동일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문화의 특성이 행동일관

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행동일관성과 관련된 변인들

자아(self)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행동일관성의 문화적 차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서구문화에서는 자아를 개인이 하나의 주체적 존재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근원적인 요소로 개념화한다. 서구의 자아개념을 보면, 자아는 개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자기실체로서 그 개인의 성격, 정서, 의지, 행동 등과 같은 심리적 제반 현상에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anziger, 1997, pp. 4-5). 자아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실체로서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그 구조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타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서구문화권에서의 개인은 자신의 이성적 인식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Harre & Gillett, 1994). 왜냐하면, 행동의 동인(agent)인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체계화를 통해 자아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자아는 그 개인의 일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참조(reference)로서 기능한다.

서구인의 자아에 대한 이러한 개념 속에는 자아에 대한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최상진, 2000). 먼저, 자아는 물질과 같은 실체(entity)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인식과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실체는 외부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둘째, 자아는 개인마다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의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Shweder & Bourne, 1984; Triandis, 1995), 자아에 근

거한 행동은 외부적 상황보다는 행위자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자아는 개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아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곧 개인의 궁극적인 자아실현이다.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자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행동의 준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내적 요인들 가령, 태도나 가치관 및 성격에 근거하여 행동을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내적 요인들 즉, 자아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근거하여 평가된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한 본질적 실체로서의 자아에 근거한 행동일수록 여러 상황이나 시간대에 걸쳐 변하지 않고 일관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한 개인이 독특하고 변함 없는 자신의 개인적 자아를 발달시킬 필요성이 현저히 약하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동양문화권의 사회는 개인을 전체 사회의 한 부분으로 지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Shweder & Bourne, 1984; Triandis, 1995). 유교나 불교의 인간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양문화는 개인의 마음을 주어진 사회의 가치나 질서 및 목표에 합일시켜야 한다는 사회지향적 자아관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에게도 사회적으로 부여된 사회·문화적 가치와 이상을 내면화하는 일이 자신의 독특한 특성에 기초한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일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아는 각 개인의 독특한 실체로서 행위의 준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이상적인 심성과 가치를 내면화한 것이다. 이처럼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규정이 사회적으로 크게 요구되지 않을 때, 한국인들이 서구적 개념의 자아를 발달시킬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질 수 있다(최상진, 2000, pp. 121-143).

또 다른 이유로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상호작용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적

합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중심적 서구문화권에서는 일관적인 자아를 가정하며 자아의 목표달성이나 자아실현 등 개인 지향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과 같은 관계 중심적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대인간 상황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를 자아의 주요 기능으로 본다(최상진과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자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대하는 상대와의 관계적 특성 및 심리적 거리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게 행동한다(Jang & Kim, 1996; Kim, 1998). 이처럼 대상과 상황에 따라 연행을 변화시키는 그 이면에는 한국문화가 연행의 일관성보다는 상황적 적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내재해 있다.

한 개인의 행동일관성은 다른 사람들이 이 개인의 행동의 발생원인(가령, 내적 성향 대 외부적 환경 등)을 어디에서 찾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즉, 주어진 행동에 대한 귀인의 유형에 따라 행동일관성의 지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그 행동이 발생하는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개인의 성격이나 내적인 성향에서 찾을 때, 이와 동일한 행동이 여러 서로 다른 상황에 걸쳐 일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행동에 대한 원인귀속은 앞서 언급한 자아에 대한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즉, 변함 없고 일정한 본질적 실체로서 자아를 개념화하는 서구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의 이유를 자아 즉, 행위자의 내적인 요인에서 찾는 반면,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요구 등에 맞게 행동하는 상황적 적합성을 이상적인 자아로 개념화하는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권에서는 행동의 이유를 자아가 아닌 사회적 혹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구문화권에서의 인과규명이 동양문화권에 비해 더 성향적인 반면, 동양문화권에서의 인과규

명은 더 상황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도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Miller(1984)의 연구에서 인도문화권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서양문화권에 비해 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Shweder와 Bourne(1984)의 연구에서도 미국인 참가자와 인도인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기술할 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이들을 성격이나 추상적인 개인적 속성에 근거하여 기술한 반면, 인도인들은 이들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행위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Choi와 Nisbett(199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Jones와 Harris(1967)의 연구패러다임에서 강제 조건에 할당된 사람이 쓴 글을 평가할 때, 한국사람에도 상당한 기본적 귀인요류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인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특정 입장의 글을 쓰도록 한 다음 타인이 쓴 글을 평가하도록 했을 경우, 이들은 미국참가자에 비해 덜 성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귀인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행동할 지는 그 사회가 관대함-엄격함 차원(loose-tight dimension)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다른 사회에 비해 어떤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엄격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동양과 같은 문화권의 사회는 다른 문화권의 사회보다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수행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한 이들이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을 때 그러한 이탈행위에 대해서 더 심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Pelto, 1968). 이와 같은 역할수행과 규범준수에 대한 사회적 엄정성에서의 차이는 행동의 원인귀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Newman, 1993). 예를 들면, 엄격한 사회에서는 비록 어떤 부정적 행동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서 발생한 부정적 행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귀인의 측면에서 한국사회와 서구사회간의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행동일관성에 있어서 문화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동양문화권에 비해 서구문화권에서는 일관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행위자의 성격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동양문화권에서는 행동의 일관성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간 차이를 성격특질차원에서 주로 특질수준(trait level)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변화패턴, 그리고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관계의 크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검증해 보고자 했다. 여기에서 특질수준이란 한 개인이 이 성격특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나 강도를 지칭하는 용어다. 특질수준은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에까지 분포할 수 있는데, 가령 한 개인이 전혀 정직하지 않거나 매우 정직하다면 그는 “정직한” 특질차원에서 특질수준이 각각 매우 낮거나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서구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대다수 성격특질에서 행동일관성은 특질수준과 직선적 및 곡선적인 관계가 있었다(Burke, Kraut & Dworkin, 1984; Paunonen, 1988; Paunonen & Jackson, 1985; Rushton, Jackson & Paunonen, 1981; Stones & Burt, 1978). 여기서 특질수준과 행동일관

성의 직선적인 정적 관계는 특정 성격특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에 해당되는 행동이 더 일관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행동일관성이란 개인의 내적인 요인 즉, 성격특질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곡선적 관계는 특질수준이 극단적일수록 그에 해당되는 행동이 더 일관적임을 의미한다. 특질수준의 극단성과 행동일관성의 관계는 사회적 범주화에서의 전형성(prototypicality) 개념과 관련된다. 성격특질은 사회적 행동을 구분 짓는 자연적인 범주인데(Borkenau, 1990), 이러한 범주들 간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다만 그 범주에 가장 적합한 전형(prototype)이 있어서 이 범주에 속하는 사례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서부터 가장 비전형적인 사례까지 매우 다양하다(Fiske & Taylor, 1991). 주어진 성격특질에서 어떤 지각대상자의 전형성은 그의 행동이 이 성격특질의 중심속성을 일관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일수록 증가한다(Borkenau, 1990; Cantor, 1978; Cantor & Mischel, 1979).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특질수준과 행동일관성의 강한 곡선적인 관계는 한 개인의 일관적인 행동이 그의 전형적인 성격특성과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행동일관성과 특질수준의 직선적 및 곡선적인 관계는 행동일관성이 성격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에 근거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반면,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관계는 일관적인 행동이 사회적 및 상황적인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가령, 한 개인의 가치체계와 행동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문화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목적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람직성에 대한 특정 사회의 판단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체계에 내면화 될 뿐만 아니라(Kluckhohn, 1962) 공식적인 사회적 제도나 규범에 상당 부분 반영된다. 또한, 가치체계는 사회마다 다양해서 문화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Rokeach, 1973). 예를 들면, 서구 문화권의 사회는 개인의 목표달성이나 자아실현 등 개인 지향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동양 문화권의 사회는 역할수행이나 원만한 대인관계유지 등 관계중심적 가치체계를 중시한다(Shweder & Bourne, 1984; Triandis, 1995).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체계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norm)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Berry et al., 1992, p. 43). 이러한 규범은 그 사회의 가치체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행동이 규범에 부합하거나 어긋나면 사회적으로 각각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바람직성이 그 사회의 요구내용과 수준을 잘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성격특질차원에서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변화패턴이 한국자료와 미국자료간에 다를 것이다. 또한,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관계가 미국대학생보다는 한국대학생에서 더 강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특정 개인의 성격특성이 아니라 특정 성격특질의 행동일관성이나 사회적 바람직성 등과 같은 특성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상적인 지각대상자를 이용하였다(Funder & Dobroth, 1987; Hayes & Dunning, 1997; John & Robins, 1993). 지각대상자가 가상적일 때, 지각자들은 특정 성격차원과 관련해서 지각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각대상자를 사용할 경우, 지각자들은 지각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특정 성격특질차원에서 지각대상자의 특질수준이나 행동일관성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질수준에 따른 성격특질의 특성에 대한 판단은 지각대상자가 가상적이냐 아니면 실제적이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없었다. 또한, 성격특질의 특성은 성격특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령 한국대학생의 지각적 특성은 어떠한 성격특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특질수준을 이용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1에서는 가장적 지각대상자를 이용하여 서구문화권에 속하는 미국대학생들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2에서는 한국대학생들로 하여금 연구 1에서와서는 다른 성격특질차원에서 가상적 및 실제적 지각대상자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지각적 특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1

방 법

참가자

54명의 미국 대학생(남자: 25명, 여자: 29명)과 83명의 한국 대학생(남자: 39명, 여자: 44명)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미국 대학생들은 미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의 한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한국 대학생들은 한국의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의 한 사립대학교에 재학중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학교에 개설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실험참가에 대

한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에서처럼(Hayes & Dunning, 1997; John & Robins, 1993), 가상적 지각대상자를 이용하여 여러 성격특질의 다양한 특질수준에 해당되는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다. 가상적 지각대상자는 Anderson(1968), Peabody(1984) 및 Rothbart와 Park(1986)의 연구로부터 선정된 80개의 성격특질 - 20개의 긍정적, 40개의 중립적 및 20개의 부정적 특질¹⁾(부록 참조) - 및 다양한 특질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5개 기술어

1) 사회적 바람직성에 근거한 3가지 유형으로의 분류는 전적으로 이러한 성격특질들의 출처가 되는 원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을 평가자로 이용할 경우, 몇몇 성격특질들은 이와는 다른 범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일한 성격특질의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지각할 때 두 표본간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성격특질의 분류에 있어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은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표 4에서 성격특질내 특질수준을 분석단위로 한 결과를 볼 때, 여기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의 두 표본간 유사성은 .80 전후로 매우 높다. 이는 익명의 한 심사위원이 제시한 방법 즉,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두 표본간에 유사한 성격특질만을 골라 이 특질들만을 대상으로 표본간 행동일관성을 비교하는 방법의 조건을 거의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중립적인 특질의 경우에는 미국자료에서조차도 특질들간에 차이가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표 3에서 중립적 특질의 SD가 상대적으로 많이 큼), 두 표본간에 비슷한 특질들을 찾겠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혹 그런 특질들만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매우 소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 성격특질을 분석단위로 한 경우, 각 성격특질유형에서 미국자료와 한국자료간의 상관이 매우 낮아, 5개의 특질수준에 걸친 사회적 바람직성의 평균점수가 두 표본간에 유사한 성격특질만을 선정할 경우, 그러한 특질의 수가 매우 작을 수 있어서 이러한 방법이 본 연구자료에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descriptor)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졌다. 5개의 기술어는 “전혀 ~하지 않는(not at all)”, “약간(not very)”, “보통으로(moderately)”, “매우(very)”, 그리고 “극단적으로(extremely)” 이었으며, 이 기술어들은 순서별로 가장 낮은 특질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특질수준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한 지각대상자는 “매우 성실한”; 다른 지각대상자는 “약간 수줍어하는” 등으로 기술되었다. 지각대상자의 전체 수는 성격특질과 기술어의 모든 가능한 조합, 즉 $80 \times 5 = 400$ 명이었다. 각 참가자들은 이 400명의 지각대상자들을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중 하나의 차원에서만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전혀 검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어떤 참가자는 검소한” 특질차원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행동적으로 일관적인지”, 혹은 다른 참가자들은 “검소한” 특질차원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를 평가했다. 모든 평가는 Likert형 단극(unipolar) 9점 척도(1점: 전혀~하지 않는, 9점: 극단적으로 그러한)상에서 이루어졌다.

절차

미국의 자료는 실험실에서 수집되었다. 6-11명으로 된 참가자 집단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이들에게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무선적으로 배부하였다. 그 다음, 참가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평가과제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평가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설문지의 표지를 주의 깊게 읽도록 지시를 하였다. 표지에는 참가자들이 지각대상자를 평가해야 할 변인에 대한 정의,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앞의 “연구재료” 부분 하단에 기술한 것과 같은 두 개의 평가 예가 제시되어 있었다. 변인의 정의에 있어서 행동일관성은 “어떤 성격특질과 관련된 행동이 여러 시간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도” 그리고 사회적 바

람직성은 “특정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 및 호감의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이 평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약 4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한국대학생들에게도 미국대학생들에게 사용한 동일한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부하였다. 학기 중간쯤 심리학 개론 수업시간이 끝날 때,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설문지를 참가자들에게 무선적으로 배부하였다. 그 다음, 참가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평가과제를 수행해서 다음 수업시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평가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설문지의 표지를 주의 깊게 읽도록 지시를 받았다. 각각 45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행동일관성에 대한 40개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43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결 과

먼저, 가상적 지각대상자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제공한 평가치들의 내적 합치도를 각 표본별로 계산하였다.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Cronbach α 는 미국자료에서 각각 .81과 .98이었으며 한국자료에서는 각각 .95와 .98이었다. 그 다음, 본 연구의 목적이 이 두 변인과 특질수준과의 규범적(normative)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선행연구들에서처럼(Funder와 Dobroch, 1987; Rothbart와 Park, 1986)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참가자들을(행동일관성의 경우 미국 및 한국자료에서 각각 6명,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 미국자료에서 1명과 한국자료에서 2명)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변인들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다시 계산한 결과,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Cronbach α 는 미국자료에서 각각 .84와 .98이었으며 한국자료에서는 각각 .96과 .9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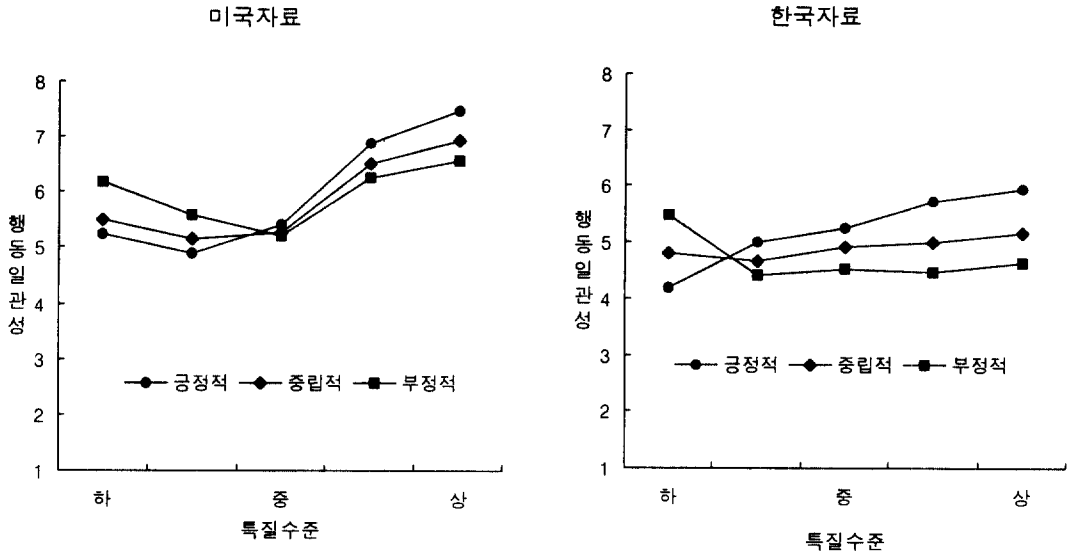


그림 1. 각 성격특질유형에 따른 특질수준과 행동일관성과의 관계

각 표본별로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행동일관성에 있어서 자료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특질 유형별로 표본(미국 대 한국)과 특질수준(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5가지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특질유형에서 표본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미국표본에 근거한 점수가 한국표본에 근거한 점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긍정적 특질의 경우, 미국자료의 평균은 $5.99(SD = 1.09)$ 이었으며 한국자료의 평균은 $5.23(SD = 1.18)$ 이었다, $F(1, 190) = 49.24$, $p < .001$. 중립적 특질의 경우, 미국자료의 평균은 $5.88(SD = .88)$ 이었으며 한국자료의 평균은 $4.91(SD = 1.45)$ 이었다, $F(1, 390) = 79.20$, $p < .001$. 부정적 특질의 경우, 미국자료의 평균은 $5.96(SD = .62)$ 이었으며 한국자료의 평균은 $4.71(SD = 1.02)$ 이었다, $F(1, 190) = 146.61$, $p < .001$. 또한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도 다르게 나타났다. 낮은 특질수준부터 높은 특질수준까지의 행동일관성은 긍정적 특질유형에서는 $4.72(1.19)$, $4.96(.36)$, $5.33(.38)$,

$6.32(1.00)$, $6.73(1.21)$ 이었으며, 중립적 특질유형에서는 $5.14(1.18)$, $4.91(.75)$, $5.10(.69)$, $5.75(1.43)$, $6.06(1.72)$ 이었고, 부정적 특질유형의 경우 $5.83(.65)$, $5.00(.77)$, $4.85(.62)$, $5.36(1.27)$, $5.61(1.40)$ 이었다. 분석결과, 긍정적, 중립적 및 부정적 특질유형 모두에서 특질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특질수준에 따라 행동일관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별로 $F(4, 190) = 51.30$, $p < .001$, $F(4, 390) = 16.06$, $p < .001$, $F(4, 190) = 12.55$, $p < .001$. 마지막으로, 모든 특질유형에서 표본과 특질수준과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앞에 제시된 특질유형 순서별로 $F(4, 190) = 8.14$, $p < .001$, $F(4, 390) = 7.08$, $p < .001$, $F(4, 190) = 6.69$, $p < .001$. 이는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변화가 표본간에 같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내 각 성격특질에 대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각 성격특질유형별로 직선적(1차) 추세와 곡선적(2차) 추세에 있어서 표본(미국과 한국)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 특질유형별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추세분석을 통해 나타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의 표본간 비교

특질유형	추 세		1차 추세			2차 추세		
	미국자료	한국자료	F	미국자료	한국자료	F		
긍정적 특질	.65(.21)	.43(.60)	2.37	.21(.08)	-.07(.19)	4.38*		
중립적 특질	.43(.29)	.10(.77)	6.34*	.19(.07)	.03(.25)	16.25***		
부정적 특질	.15(.19)	-.17(.44)	8.66**	.24(.08)	.17(.13)	35.73***		
전체	.41(.30)	.12(.68)	12.59***	.21(.07)	.04(.22)	40.76***		

주. 분석단위는 성격특질.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은 각각 20개, 중립적 특질은 40개로 전체 80개가 있었다. 따라서, 변량분석시 집단내 자유도는 각각 38, 78, 158이었다. ()는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서 성격특질을 분석단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미국표본의 경우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특성이 강했지만 곡선적인 특성도 상당히 존재했다. 한국표본의 경우 특질유형에 따른 차이가 컸으며 전체적으로 미약한 직선적인 특성이 있었지만 곡선적인 특성은 거의 없었다. 분석 결과, 긍정적 특질에서는 직선적 추세에서는 미국자료와 한국자료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곡선적 추세는 미국자료에서 더 높았다. 또한, 그 외 나머지 모든 성격유형에서 정적 직선적 및 곡선적 추세가 한국자료보다는 미국자료에서 더 높았다.

행동일관성에 있어서 미국자료와 한국자료가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둘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격특질내 특질수준을 분석단위(unit of analysis)²⁾

로 이용하였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성격특질별로 5개의 특질수준이 존재하는데, 이 특질수준을 자료분석의 기본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두 자료간에 .43의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상관은 긍정적 특질에서 가장 높고 부정적 특질에서 가장 낮아, 특질수준에 해당되는 행동일관성의 지각에 있어서 미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의 유사성이 긍정적 특질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적 특질에서 가장 낮았다. 성격특질($N = 80$)을 분석단위로 한 분석에서는 각 성격특질의 5개 특질수준에 해당하는 점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30의 상관이 있었지만 성격특질 유형별로는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동일한 변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 자료가 다른 자료의 전체 변량 중에서 20% 이하를 설명한다는 것은 두 자료간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증

- 2) 분석단위란 방법론 관련 전문용어로 문자 그대로 분석할 자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를 지칭한다. 특정 자료를 분석할 때 분석의 단위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분석의 수준에 따라 그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집단이 있고 각 집단은 5명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이 때 두 집단을 비교하는 하나의 방법은 하위집단을 무시하고 20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20개의 점수로 이루어진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때

분석단위는 개인의 점수이다. 만약 하위집단들내 구성원들간에 어떤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 하위집단의 5개의 점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먼저 하위집단의 평균을 구한 다음, 4개의 평균으로 구성된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고, 이 때의 분석단위는 하위집단이 되는 것이다.

표 2. 행동일관성에 있어서 미국자료와 한국자료간의 상관계수

특질유형 분석단위	긍정적 특질	중립적 특질	부정적 특질	전체
성격특질내 특질수준	.62***	.36***	.27**	.43***
성격특질	-.03	.38*	.23	.30**

주. 분석단위가 성격특질내 특질수준일 때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의 사례수는 각각 100(혹은 20 x 5)이며 중립적 특질은 200(혹은 40 x 5). 분석단위가 성격특질일 때 각 20의 긍정적 및 부정적 성격특질이 있으며, 40 개의 중립적 성격특질이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거라 하겠다.

각 표본별로 특질수준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회적 바람직성에 있어서 표본간 비교를 위해서 특질유형별로 표본(미국 대 한국)과 특질수준(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5가지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특질유형에서 표본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미국표본에 근거한 점수가 한국표본에 근거한 점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긍정적 특질의 경우, 미국자료의 평균은

5.24($SD = 2.23$) 이었으며 한국자료의 평균은 5.01($SD = 1.71$) 이었다, $F(1, 190) = 6.96, p < .01$. 중립적 특질의 경우, 미국자료의 평균은 4.64($SD = .97$) 이었으며 한국자료의 평균은 3.87($SD = 1.30$) 이었다, $F(1, 390) = 56.65, p < .001$. 부정적 특질의 경우, 미국자료의 평균은 4.09($SD = 2.27$) 이었으며 한국자료의 평균은 3.15($SD = 1.55$) 이었다, $F(1, 190) = 118.62, p < .001$. 또한, 특질수준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도 다르게 나타났다. 낮은 특질수준부터 높은 특질수준까지의 사회적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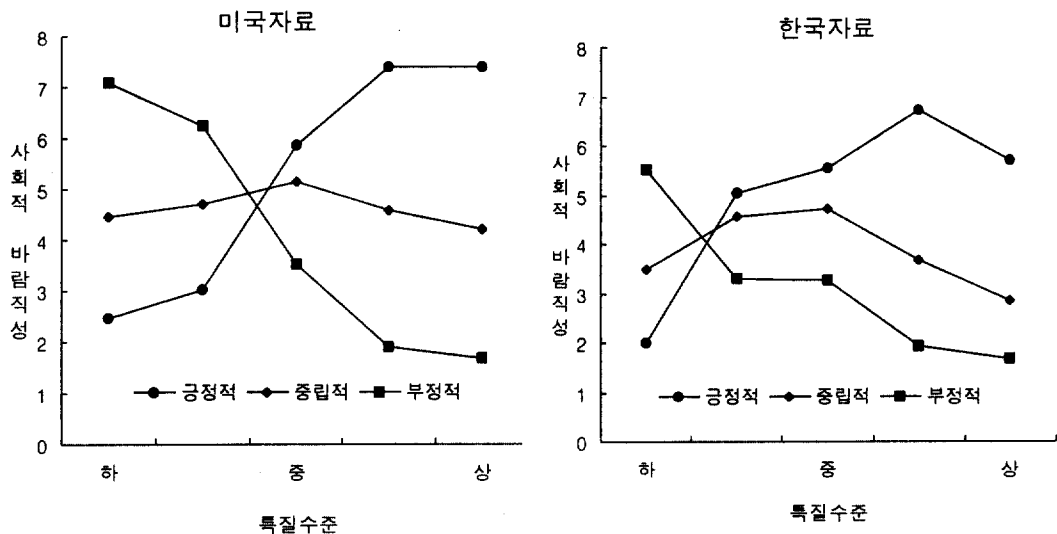


그림 2. 각 성격특질유형에 따른 특질수준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관계

람직성은 긍정적 특질유형에서는 2.23(.64), 4.01(1.20), 5.73(.43), 7.08(.69), 6.57(1.13)이었으며, 중립적 특질유형에서는 3.98(1.24), 4.65(.78), 4.95(.84), 4.14(1.31), 3.55(1.26)이었고, 부정적 특질유형의 경우 6.30(1.11), 4.78(1.58), 3.41(.62), 1.92(.58), 1.69(.50)이었다. 분석 결과, 긍정적, 중립적 및 부정적 특질유형 모두에서 특질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특질수준에 따라 사회적 바람직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별로 $F(4, 190) = 431.63$, $p < .001$, $F(4, 390) = 23.47$, $p < .001$, $F(4, 190) = 402.01$, $p < .001$. 마지막으로, 모든 특질유형에서 표본과 특질수준과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앞에 제시된 특질유형 순서별로 $F(4, 190) = 50.97$, $p < .001$, $F(4, 390) = 4.21$, $p < .01$, $F(4, 190) = 44.08$, $p < .001$. 이는 특질수준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의 변화가 표본간에 같지 않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특질수준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내 각 성격특질에 대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각 성격특질유형별로 직선적(1차) 추세와 곡선적(2차) 추세에 있어서 표본(미국과 한국)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긍정적 특질의 경우 특질수준이 증가할수록 더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는 정적인 1차적 추세는 미국자료에서 더 컸지만, 특질수준이 극단적일수록 덜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는 부적인 2차적 추세는 한국자료에서 더 높았다. 중립적 특질의 경우 부적인 2차적 추세에서만 표본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한 추세가 한국자료에서 더 높았다. 부정적 특질의 경우에는 부적인 1차적 추세에서만 표본간 차이가 있었다. 즉, 특질수준이 증가할수록 바람직성이 감소하는 추세가 미국자료에서 더 강했다.

행동일관성에서처럼, 사회적 바람직성에 있어서 미국자료와 한국자료가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둘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격특질내 특질수준을 분석단위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두 자료간에 .70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관은 특히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에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중립적 특질의 경우 특질수준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관계 정도는 두 표본간에 큰 차이가 있어서, 이 특질차원에서 특정 특질수준에

표 3. 특질유형별 특질수준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의 추세분석을 통해 나타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의 표본간 비교

특질유형	추 세		1차 추세			2차 추세		
	미국자료	한국자료		F		미국자료	한국자료	F
긍정적 특질	1.43(.36)	.91(.33)		23.02***		-.18(.09)	-.53(.10)	131.84***
중립적 특질	-.06(.54)	-.21(.52)		1.56		-.16(.11)	-.36(.31)	14.36***
부정적 특질	-1.51(.21)	-.91(.30)		55.24***		.16(.11)	.19(.25)	.14
전체	-.05(1.13)	-.10(.78)		.11		-.08(.18)	-.26(.37)	15.31***

주. 분석단위는 성격특질.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은 각각 20개, 중립적 특질은 40개로 전체 80개가 있었다. 따라서, 변량분석시 집단내 자유도는 각각 38, 78, 158이었다. ()는 표준편차. *** $p < .001$.

표 4. 사회적 바람직성에 있어서 미국자료와 한국자료간의 상관계수

분석단위 \ 특질유형	긍정적 특질	중립적 특질	부정적 특질	전체
성격특질내 특질수준	.79***	.42***	.82***	.70***
성격특질	.13	.24	.17	.71***

주. 분석단위가 성격특질내 특질수준일 때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의 사례수는 각각 100(혹은 20 x 5)이며 중립적 특질은 200(혹은 40 x 5). 분석단위가 성격특질일 때 각 20의 긍정적 및 부정적 성격특질이 있으며, 40개의 중립적 성격특질이 있다. *** $p < .001$.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지각에 있어서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간의 유사성은 다른 유형의 특질 차원에 비해 낮았다. 성격특질($N = 80$)을 분석단위로 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71의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성격특질 유형별로는 모든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격특질을 분석단위로 했을 때 유형별로 성격특질의 사회적 바람직성은 두 표본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행동일관성에 대한 앞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격특질을 분석단위로 했을 때 모든 특질유형에서 표본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성격특질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할 경우에도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성격특질유형별로 성격특질을 분석단위로 이용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covariate)으로 한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할 후에도 긍정적 및 중립적인 특질유형에서는 미국자료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각각 $F(1, 37) = 53.37, p < .001$ 과 $F(1, 77) = 12.27, p < .001$, 부정적 특질에서는 미국자료의 점수가 더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 $F(1, 37) = 3.17, p < .10$. 이러한 결과는 성격특질의 행동일관성에 있어서 미국표본과 한국표본간 차이가 단순히 성격특질의 사회적 바람직성에서의 표본간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준다.

마지막으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관계가 두 표본간에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성격특질내 특질수준을 분석단위로 한 경우, 미국자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두 변인간에 약한 정적 상관($r = .23$)이 있었지만, 이러한 정적 상관은 거의 전적으로 긍정적 특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유형의 특질에서는 모두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부정적 특질에서 그 상관이 컸다. 이는 미국자료의 경우 긍정적 성격특질에서만 특질수준에 따라 행동일관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자료에서는 모든 특질유형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상관은 미국자료에서 얻은 상관보다 통계적으로 더 컸다, $Z = 3.54, p < .001$. 성격특질을 분석단위로 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자료에서는 긍정적 특질에서만 이 두 변인간에 높은 상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두 변인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 = .13, ns$). 그러나, 한국자료에서는 긍정적 특질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두 변인간에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자료에서 얻은 상관($r = .53$)이 미국자료에서 얻은 상관보다 통계적으로 더 컸다, $Z = 1.97, p < .05$.

표 5. 각 표본별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상관계수

특질유형 분석단위	긍정적 특질	중립적 특질	부정적 특질	전체
성격특질내 특질수준				
미국자료	.80***	-.12	-.28**	.23***
한국자료	.57***	.39***	.47***	.45***
성격특질				
미국자료	.58***	.06	-.13	.13
한국자료	-.35	.66***	.66***	.53***

주. 분석단위가 성격특질내 특질수준일 때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의 사례수는 각각 100(혹은 20 x 5)이며 중립적 특질은 200(혹은 40 x 5)이고 전체 사례수는 400(혹은 80 x 5). 분석단위가 성격특질일 때 각 20의 긍정적 및 부정적 성격특질이 있으며, 40개의 중립적 성격특질이 있고 전체 80의 성격특질이 있다.

** $p < .01$. *** $p < .001$.

논 의

연구 1에서는 가상적인 지각대상자를 이용하여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에 있어서 서구문화와 한국문화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예측한대로 행동일관성에 있어서 미국자료와 한국자료간에 차이가 있었다.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변화패턴이 두 자료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격특질의 행동일관성 점수도 두 자료간에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자료에 비해 미국자료에서는 행동일관성이 특질수준에 따라 직선적 및 곡선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행동일관성이 개인의 내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서구문화의 인식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자료에 비해 한국자료에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에 관계가 더 커서, 한국자료에서 성격특질에 해당되는 행동의 일관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도 높게 지각되는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사회적인 요구나 기대 등

을 반영한다고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행동일관성이 개인의 내적 특성보다 사회적 특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한국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한국자료를 통해 얻은 이러한 결과를 재검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생을 이용하여 성격특질에 대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두 가지 방식, 즉 가상적 지각대상자 및 실제 지각대상자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2

방 법

참가자

성격특질차원에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할 때,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학교

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173명(남: 112명, 여: 61명)의 한국 대학생들은 가상적 지각대상자를 평가하는데 참가하였다. 이들은 연구 2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참가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받았다. 또한, 동일한 학교에 재학중인 99명(남: 64명, 여: 35명)의 한국대학생들은 실제 평가대상자로서 연구 2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참여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받았다. 마지막으로, 각 실제 평가대상자들과 평균 2.74년 동안 알고 지낸 친숙하고(9점 척도 상에서 $\bar{M} = 5.72$) 가까운(9점 척도 상에서 $\bar{M} = 6.01$) 2-10명(평균 7.83명)의 친구들(전체: 775명, 남: 467명, 여: 308명)이 평가자로서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참가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다.

연구자료

연구 1에서처럼, 가상적인 지각대상자는 40개의 성격특질과 특질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5개 기술어(descriptor)의 교차적 조합으로 만들어진 200(혹은 40 x 5)명으로 구성되었다. 특질수준을 나타내는 5개의 기술어는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했지만, 성격특질은 Goldberg(1990)의 5대 성격요인 즉, 외향성(extra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교양(culture)으로 구성된 분류체계에서 선정하였다(부록 참조). 이 분류체계에서 각 요인은 10개의 성격특질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성격특질차원은 양극척도(bipolar scale)로 되어 있다(예로, 내향적인-외향적인). 본 연구자는 각 요인별로 8개의 성격특질차원을 선정하여 4개의 차원에서는 왼쪽 끝에 위치한 부정적 형용사를, 나머지 4개의 차원에서는 오른쪽 끝에 위치한 긍정적 형용사를 선정하여, 결국 단극척도(unipolar scale)로 이루어진 8개의 성격특질차원, 총 40개의 성격특

질형용사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100명의 가상적 지각대상자로 구성된 2개 유형이 있었다. 이 두 유형은 각 성격요인에 속하는 성격특질형용사의 수에서 동일했다(2개의 긍정적 및 2개의 부정적 형용사). 평가자는 이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의 설문지를 무선적으로 배부 받아 100명의 지각대상자를 행동일관성이나 사회적 바람직성 중 하나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실제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가상적 지각대상자의 평가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40개의 성격특질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평가대상자의 친구들은 그들을 성격특질차원에서 특질수준 및 그 특질수준에 해당되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행동일관성 차원에서 평정하였다. 모든 평가는 Likert형 단극(unipolar) 9점 척도(1점: 전혀~하지 않는, 9점: 극단적으로 그러한)상에서 이루어졌다.

절차

가상적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심리학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에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각각에 대한 2가지 유형, 즉 전체 4가지 유형의 설문지 중에서 하나를 무선적으로 배부하였다. 그 다음, 참가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평가과제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평가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설문지의 표지를 주의 깊게 읽도록 지시하였다. 연구 1에서처럼, 표지에는 참가자들이 지각대상자를 평가해야 할 변인에 대한 정의,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개의 평가 예가 제시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이 평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실제 평가대상자로 참가한 각 학생들에게 설문지, 반송우표 및 반송봉투 각 10개를 배부한 다음, 이것을 자신들의 친구 10명에게 배부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평가를 하기 전에 설문지 표지 부분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는 점을 실제 평가대상자를 통해 그들의 친구인 평가자들에게 주시켰다. 설문지 표지 부분에서 특질수준, 행동일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등 평가해야 할 각 차원에 대한 설명과 평가방법을 자세히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2개의 평가 예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이 부분에서 완성된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평가자에게 지시하였으며 연구자의 주소와 연락처도 제시하였다.

결 과

참가자들이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차원에서 가상적 지각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한 평가치들의 내적 합치도를 두 유형별로 계산하여 평균하

였다. 그 결과,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Cronbach α 는 각각 .92와 .99이었다. 연구 1에서처럼, 내적 합치도를 떨어뜨리는 참가자들을(행동일관성의 경우 87명중에서 15명,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 88명중에서 4명)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변인들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유형별로 다시 계산하여 평균한 결과,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Cronbach α 는 각각 .93과 .99이었다.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 각각에 대하여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변화가 각 요인별로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특질 유형에서 요인별 평균을 계산한 결과, 긍정적 특질의 경우 외향성에서 교양까지 순서별로 5.11(.15), 5.29(.30), 5.57(.29), 5.43(.22), 5.01(.57)이었으며, 부정적 특질의 경우 순서별로 4.68(.62), 5.36(.51), 4.12(.36), 4.4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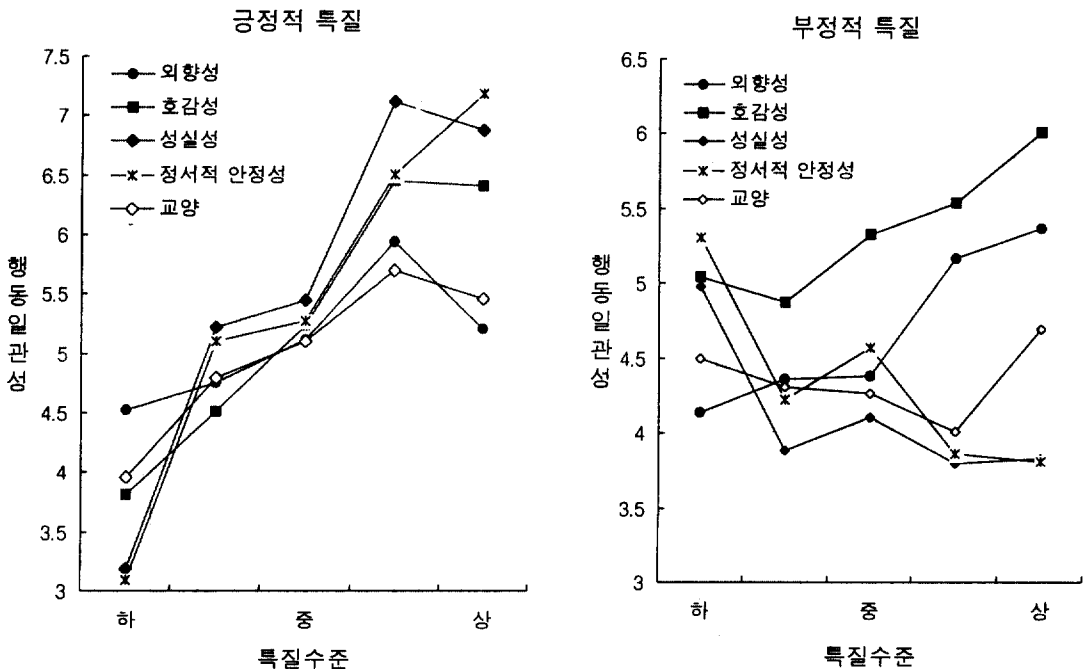


그림 3. 각 성격요인별 특질수준과 행동일관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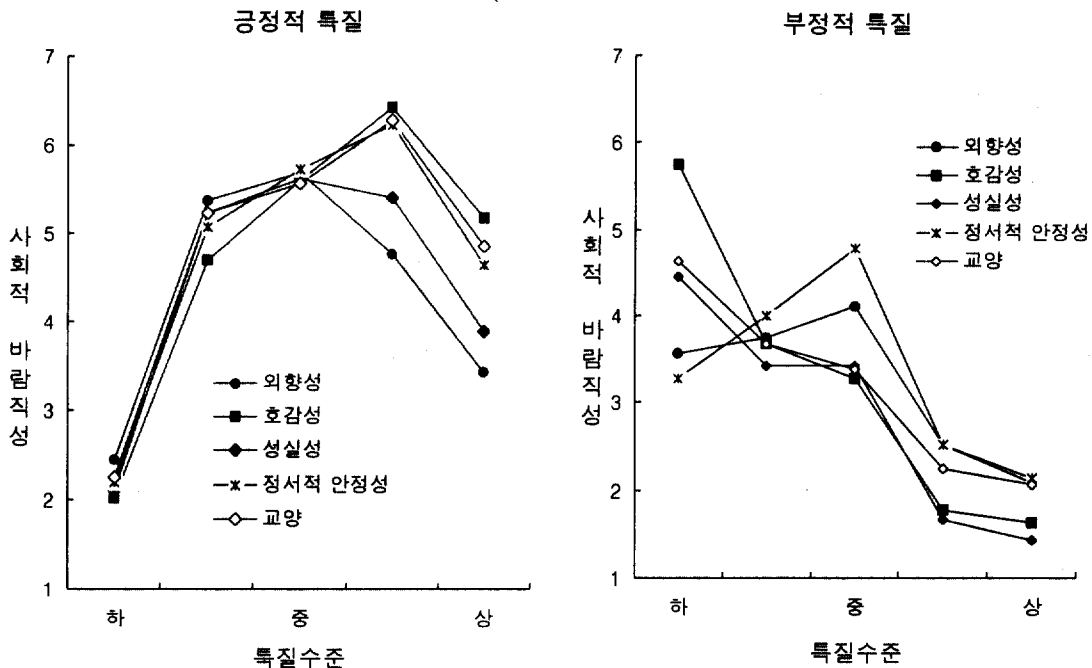


그림 4. 각 성격요인별 특질수준과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

4.36(.63)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긍정적 특질의 경우 모든 요인에 걸쳐 강한 정적인 직선적 관계가 있었다. 또한, 행동일관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특질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특질수준보다 낮아 어느 정도의 곡선적 관계도 있었다. 이에 비해, 부정적 특질의 경우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변화가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외향성과 호감성에서는 특질수준과 행동일관성의 정적인 직선적 관계가 뚜렷한 반면,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에서는 부적인 직선적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교양에서는 그 변화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직선적 및 곡선적 관계가 있어 보인다.

특질수준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의 변화를 살펴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특질 유형에서 요인별 평균을 계산한 결과, 긍정적 특질의 경우 외향성에서 교양까지 순서별로

4.34(.40), 4.78(.20), 4.46(.33), 4.77(.29), 4.84(.38)이었으며, 부정적 특질의 경우 순서별로 3.20(.33), 3.22(.41), 2.88(.30), 3.34(.33), 3.20(.27)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긍정적인 성격특질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어느 정도 정적인 직선적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곡선적 관계의 경향성이 매우 뚜렷했는데, 그 이유는 전적으로 가장 높은 특질수준이 두 번째로 높거나 혹은 중간 수준의 특질수준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성격특질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은 특질수준과 강한 부적인 직선적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외향성과 정서안정성 차원에서 중간 정도의 특질수준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1에서 얻은 중립적 성격특질의 패턴과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성격특질내

표 6. 가상적 지각대상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상관계수

측정치 \ Big Five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교양	전체
상관계수	.18	.35*	.61***	.61***	.34*	.44***

주. 성격특질내 특질수준을 분석단위로 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였으며 각 요인에는 8개의 성격특질이 있었다($N = 5 \times 8$ 혹은 40). 전체 사례수는 200(혹은 40 x 5). * $p < .05$. *** $p < .001$.

특질수준을 분석단위로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각 요인별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외향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에서의 상관이 매우 컸다. 전체적으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상관관계는 .44 ($p < .001$)로, 특질수준에 따라 행동일관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도 증가하는 경향성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있었다. 성격특질($N = 40$)을 분석단위로 한 경우에도 .56 ($p < .001$)이라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자료와 동일하게 가상적인 평가대상자를 이용한 연구 1에서 얻은 한국자료의 결과와 상당히 일관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2에서는 또한 실제 인물을 평가대상자로 이용하여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다. 특정 성격특질에서 특정 평가대상자가 가지는 특질수준, 행동일관성 및 사회적 바람직성은 이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제공한 평정

치들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특정 성격특질의 행동일관성 및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는 이 성격특질차원에서 모든 평가대상자가 얻은 점수들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상관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성격요인내 평가대상자를 분석단위로 한 경우, 외향성에서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지만 전체적으로 .53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성격특질($N = 40$)을 분석단위로 했을 경우에도 .88 ($p < .001$)이라는 대단히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실제 인물을 이용하여 얻은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상적인 지각대상자를 기초로 한 연구결과들과 매우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질수준과 행동일관성의 직선적 및 곡선적 관계를 성격요인내 평가대상자를 분석단위로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행동일관성은 특질수준과 .12에서부터 .35까지 평균 .20의 직선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상관은 유의미했다. 이는 특질수준

표 7. 실제 지각대상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상관계수

측정치 \ Big Five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교양	전체
상관계수	.38***	.61***	.51***	.52***	.56***	.53***

주. 성격요인내 평가대상자를 분석단위로 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였으며 각 요인에는 8개의 성격특질이 있었다($N = 792$ 혹은 8 x 99). 전체 사례수는 3960(혹은 792 x 5). *** $p < .001$.

표 8. 실제 지각대상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특질수준과 행동일관성의 관계

상관유형 \ Big Five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교양	전체
단순상관						
직선적 관계	.22***	.35***	.12***	.14***	.16***	.20***
곡선적 관계	.22***	.22***	.22***	.24***	.28***	.25***
부분상관						
직선적 관계	.14***	.14***	.15***	.09*	.05	.11***
곡선적 관계	.15*	.04	.04	.11**	.12***	.09***

주. 분석단위는 성격요인내 평가대상자이며 각 요인에는 8개의 성격특질이 있었다(N = 792 혹은 8 x 99). 전체 사례수는 3960(혹은 792 x 5). 곡선적 관계는 특질수준이 극단적일수록 행동일관성이 증가하는 2차적 관계를 의미한다.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의 상관이다.

* $p < .05$. ** $p < .01$. *** $p < .001$.

에 따라 행동일관성이 증가하지만 그 경향성이 매우 약함을 함의한다. 또한, 이 두 변인간의 곡선적 관계는 .22에서 .28까지 평균 .25의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특질수준이 극단적일수록 행동일관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의 크기는 특질수준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상당히 작아졌다. 특질수준과 행동일관성의 부분상관은 직선적 관계가 평균 .11 그리고 곡선적 관계가 평균 .09이었으며, 이러한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직선적 및 곡선적 부분상관은 단순상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았다. 각각 $Z = 4.00$, $p < .001$, $Z = 7.12$, $p < .001$. 이는 특질수준이 행동일관성과 갖는 상관이 상당 부분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것임을 지적해 준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격특질(N = 40)을 분석단위로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행동일관성은 특질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9$) 그리고 특질수준의 극단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 -.76$)이 있어서, 특질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일관성이 증가했지만, 특질수준이 극단적일수록 행동일관성은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모두 성격특질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경우, 행동일관성이 특질수준 및 특질수준의 극단성과 갖는 상관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r = .04$ 와 $-.13$).

논 의

연구 2에서는 가상적 평가대상자 및 실제 평가대상자를 이용하여 한국대학생들이 성격특질차원에서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구 1의 한국자료에서 얻은 결과처럼 성격특질의 행동일관성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행동일관성과 특질수준과의 관계는 성격특질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크게 달랐다.

또한, 행동일관성과 특질수준의 관계 정도도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 약해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방법이나 평가대상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상당히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구 2의 결과는 한국문화에서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매우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총 합 논 의

본 연구자는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 성격특질차원에서의 행동일관성에 서구문화와 한국문화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1의 결과, 특질수준에 따른 행동일관성의 변화는 미국자료와 한국자료간에 차이가 있었다. 성격특질을 분석단위로 한 경우에도, 미국자료에서 행동일관성이 더 높게 나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미국자료에서는 행동일관성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전체적으로 거의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동일관성이 개인의 내적인 요인 즉, 성격특질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서구문화의 인식을 반영한다. 반면에, 한국자료에서는 행동일관성과 특질수준의 관계는 성격특질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랐으며, 실제적인 평가대상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그 상관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자료에서는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에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종류, 성격특질의 유형 및 분석단위에 상관없이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문화에서 행동일관성이 개인의 내적인 특성보다는 사회적인 규범, 요구나 기대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행동일관성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행동일관성의 특질수준에 따른 변화는 우리들의 직관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와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서구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를 보면, 대다수 성격특질에서 행동일관성은 특질수준과 직선적 및 곡선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곡선적인 관계가 강해 특질수준이 극단적일수록 행동일관성이 증가했다(Burke et al., 1984; Paunonen, 1988; Paunonen & Jackson, 1985; Rushton et al., 1981; Stones & Burt, 1978),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미국자료에서도 행동일관성이 특질수준과 직선적 및 곡선적 관계가 있었지만,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양극척도(bipolar scale)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극척도(unipolar scale)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평가척도에서의 반응에 대한 범주모형(Categorical model: Ostrom & Gannon, 1996)에 따르면, 척도의 극단에 있는 단어가 그것에 해당되는 인지적 범주들을 활성화시킨다. Gannon과 Ostrom (1996)은 이 모형에 근거하여 양극척도의 경우(예로 내향적-외향적) 어떤 범주를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분명하지만, 단극척도에서는(예로, 내향적) 특질수준이 가장 낮은 극단(예로, 전혀 내향적이지 않은)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적 범주가 분명하지 않아 이 그단의 의미를 추론해야 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극척도에서 “전혀 내향적이지 않은” 사람은 “매우 외향적인”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미국자료의 경우,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낮은 특질수준에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척도상의 차이가 한국의 자료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국자료에서 행동 일관성과 특질수준의 관계가 기존의 미국자료에서처럼 곡선적이지 않은 것은 단지 척도상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한 문화적인 차이도 반영한다고 하겠다.

행동일관성에 대하여 한국표본에서 얻은 결과는 미국표본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서 상당히 독특한 것으로 그 함의하는 바가 크다. 먼저, 행동일관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특성을 개념화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많은 심리학이론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지적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서구 심리학자들의 이러한 가정은 앞서 언급한 인지부조화이론(Festinger, 1957)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균형이론(Heider, 1958),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에 대한 이론(Swan, 1983) 등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곧 그들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지적 일관성의 추구는 매우 보편적이라고들 기대한다(Fiske et al., 1998).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도 어느 정도는 문화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은 대인간 수용을 위해서 때로 일관성을 희생하며(Iwao, 1988, Fiske et al.에서 재인용), 행동과 태도간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서양문화권의 호주사람보다는 동양문화권의 일본사람에게서 더 약했다(Kashima, Siegel, Tanaka & Kashima, 1992, Fiske et al.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한국자료를 통해 얻은 행동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높은 관련성 역시 서구문화에 비해 한국문화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서양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인지적 일관성은 그 문화에 속한 개인들의 도덕성을 평가하는데

도 깊이 관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사회에서도덕적으로 중요한 덕목은 자유, 독립성, 자결권, 개인의 권리 등이며, 이러한 덕목들은 미국의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들이다. 그러나, 도덕판단체계는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화적 제약에 노출되어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대인지각에 있어서 사회적 범주화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어진 성격특질에서의 전형성은 그 성격특질차원에서의 일관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Borkenau, 1990; Cantor, 1978; Cantor와 Mischel, 1979). 그러나, 한국자료에서는 특질수준의 극단성이 행동일관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는 전형성에 대한 기존의 서구적 개념이 한국문화권에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결국, 서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범주화에서의 전형성 개념이 한국문화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점들은 한국의 사회적 현상과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서구의 이론이나 설명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적인 결과는 문화권에 따라 행동일관성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행동일관성이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세계관 및 인간관을 반영하는 현상임을 함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상황에 걸친 일관성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대신에 융통성 등과 같은 적절한 상황대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내적인 태도와 상관없이 타인을 고려해서 하는 행동, 가령 체면 행위, 의례적 언행, 눈치 행동 등을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빈번하게 한다(최상진, 2000). 예를 들면, 한국인의 두드러진

행동특성 중의 하나인 체면에 대한 연구를 보면 행동의 일관성보다는 상황적 적합성이 한국인에게 더 중요한 행동준거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체면의 여러 유형 중에서 지켜주는 체면은 특정 상대방의 지위나 신분에 부합하는 행동을 형식적으로 보임으로써 자신이 상대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알리는 행동을 의미한다. 세워주는 체면은 자신이 제 3자가 상대방의 능력이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고 그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례적인 행동이나 말, 가령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평가나 예의적 차원에서 언행 등 마음에 없는 행동이나 상대방을 고려해서 자신의 마음과 다른 언행을 하는 것 모두 한국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눈치에 근거한 행동 역시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방의 기대나 입장, 심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동이다. 한국인에게 눈치가 발달하게 된 이유들은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려하고(윤태림, 1971),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오세철, 1979), 그리고 상대의 기분과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이다(최상진, 2000).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이와 같은 말이나 행동, 의례적인 언행 그리고 눈치에 근거한 행동 등은 모두 행위자 자신이 실제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생기는 자신의 내적인 요인과 외현적 행동간의 비일관성이 한국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최상진, 2000). 대신에, 한국사회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일관성은 여러 개인간 혹은 상황간의 행동일관성이 아닌 반면, 정조나 의리 등 특정 대상과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말하자면, 한국인

들은 다수의 상대방에 대한 일관성이 아니라 단수의 상대방에 대한 일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행동일관성과 관련된 개념들, 경험적 자료에 대한 결과, 그리고 한국인의 행동특성들은 모두 행동의 일관성 역시 문화적인 제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지적해 준다.

결론적으로, 행동일관성이 특정 문화권에서 인간의 심리나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때, 이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서구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행동일관성이라는 개념은 서구의 문화적 틀 속에서 서구인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적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자료에서 얻은 결과들은 이 개념이 한국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서구문화권에서와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 심리학에서 개념화된 행동일관성 혹은 그러한 개념에 기초한 이론을 단순히 적용하여 한국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특정 개념이 특정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이 그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라고 믿는다.

참 고 문 헌

- 오세철 (1979). *문화와 사회심리이론*. 서울: 박영사.
 윤태림 (1971).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현암사.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

- 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9-295.
- Anderson, N. A. (1968). Lik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trait wo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72-279.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kenau, P. (1990). Traits as ideal-based and goal-derived social categ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81-396.
- Burke, P. A., Kraut, R. E., & Dworkin, R. H. (1984). Traits, consistency, and self-schemata: What do our methods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568-579.
- Cantor, N. (1978). *Prototypicality and personality judg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Cantor, N., & Mischel, W. (1979). Prototype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2, pp. 3-52). New York: Academic Press.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in the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Danziger, K. (1997).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915-981). New York: McGraw-Hill.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under, D. C., & Dobroth, K. M. (1987). Differences between traits: Properties associated with interjudge agre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409-418.
- Gannon, K. M., & Ostrom, T. M. (1996). How meaning is given to rating scales: The effects of response language on category act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337-360.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Harre, R., & Gillett, T. (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 Hayes, A. F., & Dunning, D. (1997). Construal processes and trait ambiguity: Implications for self-peer agreement in personality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664-677.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Iwao, S. (1988, August). *Social psychology's models of man: Isn't it time for East to meet West?* Invited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cientific Psychology, Sydney, Australia.
- Jang, M.-H., & Kim, K. (1996). *The self-concept in the Korean family*. Paper presented in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une, 27-29, Seoul, Korea.
- John, O. P., & Robins, R. W. (1993). Determinants of interjudge agreement on personality traits: The big five domains, observability, evaluativeness, and the unique perspective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61, 523-551.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24.
- Kashima, Y., Siegel, M., Tanaka, K., & Kashima, E. S. (1992). Do people believe behaviors are consistent with attitudes? Toward a cultural psychology of attribution process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111-124.
- Kenrick, D. T., & Funder, D. C. (1988). Profiting from controversy: Lessons from the person-situation debate. *American Psychologist*, 43, 23-34.
- Kim, D-I. (1998). *Self-concept clarity in Korea. Personality, self-consciousness and behavioral correlate*. 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luckhohn, C. (1962).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 E.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Wiley.
- Newman, L. S. (1993). How individualists interpret behavior: Idiocentrism and spontaneous trait inference. *Social Cognition*, 11, 243-269.
- Ostrom, T. M., & Gannon, K. M. (1996). Exemplar generation: How respondents give meaning to rating scales. In S. Sudman & N. Schwarz (Eds.), *Answering questions: Methodology for determining cognitive and communicative processes in survey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Paunonen, S. V. (1988). Trait relevance and the differential predictability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56, 599-619.
- Paunonen, S. V., & Jackson, D. N. (1985). Idiographic measurement strategies for personality and prediction: Some unredeemed promissory notes. *Psychological Review*, 92, 486-511.
- Peabody, D. (1984). Personality dimensions through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384-403.
- Pelto, P. J. (1968). The difference between "tight" and "loose" societies. *Transaction*, April, 37-40.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oss, L., & Nisbett, R. E. (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Rothbart, M., & Park, B. (1986). On the confirmability and disconfirmability of trait concep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31-142.
- Rushton, J. P., Jackson, D. N., & Paunonen, S. V. (1981). Personality: Nomothetic or idiographic? A response to Kenrick and Stringfield. *Psychological Review*, 88, 582-589.
- Shweder, R. A., & Bourne, L. (1984).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 A. Shweder & R. A. Levine (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pp. 158-1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nes, M. J., & Burt, G. (1978). Quasi-statistical inference in rating behavior: I. Preliminary investig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2, 381-389.
- Swan, W. B., Jr. (1983). self-verification: Bringing social reality into harmony with the self. In J. Suls & A. G.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2, pp. 33-66). Hillsdale, NJ: Erlbaum.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lder, CO: Westview Press.

부 록

1. 연구 1에 사용된 성격특질목록

긍정적 특질 20개: 차분한(calm), 능력 있는(capable), 지적인(intelligent), 친절한(kind), 쾌활한(cheerful), 사려 깊은(considerate), 창조적인(creative), 신뢰할만한(dependable), 솔직한(honest), 책임감이 있는(responsible), 너그러운(good-natured), 진실한(truthful), 이해력이 있는(understanding), 따뜻한(warm), 유머가 있는(humorous), 상상력이 풍부한(imaginative), 열정적인(enthusiastic), 성실한(sincere),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outgoing), 정돈된(organized)

중립적 특질 40개: 자기주장이 강한(aggressive), 불안해하는(anxious), 대담한(bold),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candid), 조심성 있는(cautious), 변하는(changable), 관습적인(conventional), 교활한(cunning), 감정에 영향 받기 쉬운(emotional), 흥분하기 쉬운(excitable), 도를 지나친(extravagant), 힘찬(forceful), 잊는 버릇이 있는(forgetful), 망설이느(hesitant), 겸손한(humble), 충동적인(impulsive), 개인주의적인(individualistic), 억제하는(inhibited), 순진한(innocent), 꼼꼼한(meticulous), 구시대적인(old-fashioned), 완벽주의자적인(perfectionistic), 고집스럽게 끈질긴(persistent), 재미없는(ponderous), 자부심이 강한(proud), 조용한(quiet), 마음에 담아두는(reserved), 강직한(righteous),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self-concerned), 자신에게 만족하는(self-satisfied), 약삭빠른(shrewd), 수줍음을 타는(shy), 회의적인(skeptical), 심각한(solemn), 의기소침한(somber),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 받기 쉬운(suggestible), 말하기 좋아하는(talkative), 검소한(thrifty), 소심한(timid), 다부진(tough)

부정적 특질 20개: 권태로운(boring), 차가운(cold), 불평하는(complaining), 자만하는(conceited), 겁 많은(cowardly), 잔인한(cruel), 남을 속이는(deceitful), 우울한(gloomy), 탐욕스러운(greedy), 적대적인(hostile), 화를 잘 내는(hot-tempered), 무지한(ignorant), 성마른(irritable), 비열한(mean), 편협된(narrow-minded), 꼬치꼬치 캐묻는(nosey), 사기를 치는(phony), 무례한(rude), 이기적인(selfish), 지저분한(sloppy).

2. 연구 2에 사용된 성격특질목록(각 요인별로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 각각 4개)

외향성: 얘기하길 좋아하는, 열성적인, 외향적인, 대담한, 비사교적인, 억제하는, 비활동적인, 자신이 없는

호감성: 친절함, 진실됨, 마음에 드는, 관대한, 딱 막힌, 무례한, 차가운, 이기적인

성실성: 책임감이 있는, 꼼꼼한, 조직화된, 진지한, 믿지 못할, 부주의한, 사치스러운, 조심성이 없는

정서적 안정성: 차분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침착한, 만족해하는, 긴장된, 신경이 예민한, 감정적인, 화를 잘 내는

교양: 지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깊이 생각하는, 창조적인, 교양이 없는, 호기심이 없는, 품위가 없는, 분석적이 아닌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ulture in Behavioral Consistency on Personality Trait Dimensions

Taeyun Jung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It is argued that the western culture places emphases on intern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behavioral consistency, whereas the eastern culture deems social factors as determinants of behavioral consistency. To examine this argument, two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in behavioral consistency on personality trait dimensions were compared in Study 1 and 2. In Study 1, Korean and American undergraduates rated hypothetical targets for behavioral consistency and social desirability. For the American data set, behavioral consistency for personality traits varied mainly as a function of extremity on those trait dimensions. For the Korean data set, however, it was strong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desirability, but not with extremity. Using both hypothetical and real targets, Study 2 replicated the Study 1 findings from the Korean sample. That is, behavioral consistency had a strong association with social desirability, a clear-cut confirmation of Study 1.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 an emphasis o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indigenous to the Korean culture in studying Korean people.

Keywords : personality traits, trait level, behavioral consistency, social desirability, Korean culture.

1 차원고접수 : 2001. 4. 16.
수정원고접수 : 2001. 9. 13.
최종게재결정 : 2001. 11. 26.